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새해부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될 예정입니다.

3. 성경공부 재개

새해부터 수요일 성경 공부를 재개합니다. 성경 공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1월 8일(수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새해부터 주일 애찬 시간에 그룹으로 나누는 교제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5. 주일예배 찬양 섬김

매월 첫째 주 - 중창팀 특송
매월 셋째 주 - 찬양팀 특송
매월 마지막 주 - 찬양인도 : 강민선 집사님

6. 신년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주일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주 (12/22)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률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3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4.12.29 (584호)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전주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1장 27 -32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표징을 구하는 세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5일(신년주일)	1월 12일
이우선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산상설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마7:21)는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설교에는 그래서 인간인 우리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승인 석가는 무가 이 세상의 진리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의 스승들은 그 부처의 뜻을 따라 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토록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자들이 과연 그 부처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면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에 달린 기도제목만 봐도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제목에는 큰 글씨로 “소원성취”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믿으려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한결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결하고 의로워 보인다고 할 지라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힘센사람을 사탄 마귀로 비유하시고 그 보다 더 힘센 사람을 자신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 자신이 오셨음을 밝히십니다.

사탄의 일이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꾀있는 척, 멋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을 또 다시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갔던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